

# 대학 '알짜' 프로그램으로 공기업 취업문 열었다

동신대 출신 2명이 말하는 혁신도시 공기업 취업 노하우

**한전KPS 김민철씨**



학교에서 제공하는 현장 실습이 취업 공부에 많은 도움됐어요. 학교 취업 프로그램 꼭 이용하세요!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이 학교와 가까워져 취업 정보 얻기도 쉽고 긍정적인 자극이 됐어요.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고현욱씨**



## 실무 위주 현장 실습...공기업 전형 'NCS' 시험 준비 수월

### '총장 함께하는 독서클럽'...공대생 인문학 소양 넓히기 도움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취업'이다. 최악의 취업난을 뚫기 위해 학점·어학성적·자격증·해외연수·공모전 수상 경력·봉사활동·인턴경력 등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을 쌓으려는 취업준비생들의 소리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지방대생들은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과의 학벌 경쟁까지 버텨내야 한다.

동신대 출신 고현욱(26)씨와 김민철(28)씨는 지방대 핸드캡을 안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취업 관문을 뚫은 케이스다. 이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뚫은 전략과 노하우는 뭘까.

◇학교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효과 특출 =고현욱씨는 혁신도시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합격, 신입 직원 직무 교육을 받는 등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오던 야구선수 생활을 접고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에 진학했다. 방향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야구밖에 몰랐던 그에게 모든 게

낮설고 힘들었다.

"또래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죠. 출발선이 다르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4년 내내 늘 찾차를 타고 학교를 찾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겼다."

그는 "학교의 취업·진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덕을 토포하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가 제공한 한 달 간의 전파진흥원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장 실습 덕에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방식,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 준비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NCS가 공기업 채용 전(후)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도입된 지 1년 남

짓이라 취업 준비생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대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고현욱씨는 "현장실습" 경험이 없다면 현장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채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축되지 말고 학교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등 장점을 활용한다면 자신만의 강점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발빠른 취업 정보, 동기 부여도 =김민철씨는 요즘 정신없이 바쁜 새내기 직장인이다.

그는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지난해 말 한전 KPS에 합격해 4주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부산 고리원자력본부로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김씨는 "눈앞에 '목표'가 보이니 주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학교 앞에 위치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빨리 접할 수 있어 그만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명문대생들을 포함한 상당수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에너지 공기업이라 부담도 됐지만 학교 앞에 위치한 기업이라 동기 부여가 되는 등 긍정적 자극을 받았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총장과 함께 하는 독서클럽도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씨는 "에너지 기업들이 인접한 대학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에서 나주행을 택했다"면서 "수소에너지학과 관련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데다, 향후 중동 파견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데, KPS 취업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을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대, 사회적기업 전문가 교육

### 내년 경영 MBA 과정 개설

광주대가 최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6년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사회적기업가 전문 양성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대는 올해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운영 기관에 선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기업가 리더과정은 세미 석사 과정으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수준 높은 심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 핵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국내 대학원 3개소를 선정해 운영하는데, 올해는 광주대가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로 선정됐다.

광주대는 지난 2014년 2월 사회적기업단을 설립,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 활동을 맡아왔다.

광주대는 또 지난해 창조융합대학 내 사회적기업경영 전공을 개설하고 대학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소를 설립해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대는 내년에는 정식 학위과정인 사회적기업 경영 MBA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광주대 관계자는 "대학원에서 사회적기업리더 과정을 운영하게 돼 사회적경제 전문가 교육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동강대, 정시 2차 모집...취업 실속 학과 관심

동강대(총장 김동욱)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016학년도 정시 2차 모집'에 들어간다.

특히 현장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으로 심각한 취업난에 남다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실용형 학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매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아교육과와 지적전공분야에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해온 토지정보과 등 22개 학과가 신입생을 뽑는다.

유아교육과는 지난 2013년 교육부의 교원양성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학과로, 전문 문화를 통한 인성 교육을 통해 예비 유아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토지정보관리과는 실습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등 시대적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광주 유일의 지적 분야 학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드론실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과로, 지난 2013년 80%, 2014년 74.4% 등 높은 취업률로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특색학인인 소풍물디자인창업과도 전국 창업보육의 메카로 꼽히는 동강대 B센터와 연계, 창업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학과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진로 설정부터 직무능력까지 책임진다

### 동신대 취업반 집중 교육·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등

동신대는 작지만 단단한 대학이다.

연간 졸업생 규모로는 1000명 이상~2000명 미만인 대학(그림)에 속하지만 취업률은 지난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5년 동안 광주·전남 일반제 대학 중 가장 높았다. 국가시험 합격률도 높다.

군사학과의 경우 2학년 남녀 재학생 모두 100% 장교 시험에 합격했고 물리치료학과 졸업예정자 90명이 올해 치러진 제

43회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전원 합격했다. 안경광학과도 제 28회 안경사 국가고시에서 졸업예정자 전원이 합격, 지난 2010년 이후 5년 간 '졸업예정자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올렸다.

비결은 뭘까. 동신대는 체계적 취업·진로 지원시스템이 한몫을 한다고 분석했다. 동신반딧불(After School Program), 사제공동체, 봉사학습공동체, 창의적학습공

동체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국가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정 스마일(3~4학년 100명) 프로그램 등 집중 취업 엘리트 교육에 개인별 인성·진로 설정,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입사서류 작성·면접 방법 지원까지 취업 전 과정에 도움을 주는 꼼꼼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학교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당장, 교육부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선정돼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데다, LINC 사업(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 CK-I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필식 동신 총장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문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교육단신

▲2일 광주·전남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광주시교육청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주지역 중등교사 합격자는 ▲국어 5명 ▲수학 4명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역사·지리 각 2명 ▲도덕·윤리 6명 ▲체육 13명 ▲영어 5명 ▲중국어 4명 등 79명(장애 2명 포함)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오전 10시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합격 인원은 일반 교사 310명·도사지역 교사 3명·장애 교사 7명 등 320명이다. 장애 교

사의 경우 애초 22명을 선발하려 했지만 과락(과목당 40점 미만)으로 15명이 탈락, 7명만 선발했다.

▲조선대, 해외석학 초청강연 및 학술대회 =조선대 BK21+ 아시아급기문회전문인력양성사업팀(팀장 강희숙)은 2일부터 이틀간 인문과학대 세미나실에서 '혈오의 언어, 정념, 표상'을 주제로 해외석학 초청강연 및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방항욱 중국 치치아얼대 교수를 비롯, 국내외 연구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타자 혐오'의 현상을 언어·심리·문화정치학 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매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매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